

경산성의 표준화 관민전략

□ 배경

- 경산성은 신시장 창조와 기업의 경쟁력강화 요소인 ‘표준화’에 관해 관민이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표준화전략을 책정하기 위해 ‘14.3.3부터 ‘표준화 관민전략 회의’를 개최
 - 모테기 경제산업대신은 제2차 회의(‘14.5.15)를 주재하고, ‘표준화 관민전략’을 책정
 - 국제표준의 창구 조직의 정비, 인재 육성,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차별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에 등에 대해 논의
- 표준화의 추진은 새로운 기술이나 우수한 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신시장의 창조, 경쟁력 강화에 의한 일본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국제표준화와 성장전략

- 국제표준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06년에 개최된 ‘국제표준화 관민전략 회의’에서 ‘국제표준화 전략목표’를 책정
 - ‘15년까지 구미 국가들 수준까지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12년에는 국제표준화 안건은 2배를 달성하였고, 간사국 인수 건수는 영국과 프랑스 수준으로 증가
 - ‘13.6월에 발표된 성장전략에는 국제전문위원회 간사국 인수 건수를 “‘10년 말 78건에서 ‘15년 말까지 세계 3위권에 진입하는 수준(95건)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

* ‘14.6월 발표될 신성장전략에도 표준화 관민전략이 포함될 가능성

<참고>

표준화 관민전략

2014년 5월 15일
표준화관민전략회의

표준화의 전략적인 추진은 새로운 기술이나 우수한 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통해 국민 생활의 향상이나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신시장의 창조나 경쟁력의 강화에 의한 일본 산업의 발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인 표준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민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부처나 산업 분야를 초월한 연계 아래서 체제 정비 등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를 일본이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재의 육성, 국제적인 연계와 인증과의 일체적 추진을 관민이 협력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서 다음 구체적인 대책을 관민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실행하기로 한다.

1. 관민의 체제 정비

(1) 신시장 창조형의 표준화 제도 구축

정부는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곤란한 복수 관계 단체에 걸친 융합기술이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수의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에 관한 표준화를 신속히 추진할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재단법인 일본규격협회(JSA)가 국내표준(JIS) 및 국제표준(ISO/IEC)의 원안 작성기관 및 국내 심의기관이 되거나 또는 특정 기업 스스로가 국제표준의 원안을 책정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신시장창조형 표준화제도)을 구축한다.

(2) 산업계의 표준화전략 강화

- ① 산업계는 개별 기업이 자사의 기술·제품에 관한 협조 영역과 경쟁 영역을 판단하는 적절한 오픈·클로즈 전략을 고려한 표준화전략을 사업전략, 연구·개발전략, 지적재산 전략 등을 일체로 추진하기 위해 표준화에 관한 회사 전체의 전략 추진 등을 담당하는 최고 표준화 책임자(Chief Standardization Officer: CSO)의 설치 등에 의해 체제를 강화하고 표준화를 추진한다.
- ②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및 관련기관은 정부와 협력하여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전략적인 표준화의 필요성·유효성 등에 대해 계발활동을 실시한다.

- ③ 정부는 산업계의 협력을 얻어 표준화의 성공사례, 각 분야의 표준화 활동의 실적이나 국제 동향 등 업종을 초월하여 공유해야 하는 지식·정보를 계속적으로 정리하고 제공한다. 또한 일반사단법인 국제표준화협회(ISF)는 경영자, 실무자에게 업종 횡단적인 의견 교환이나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노력을 한다.

(3) 중소기업의 표준화 및 인증의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① 정부와 일본상공회의소, JSA 등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용 성공사례 소개를 포함한 전략적인 표준화 및 인증의 중요성에 관한 보급계발이나 상담을 실시하는 동시에 각국의 기준 인증 동향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한다.
-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본격적인 국제 전개를 고려하여 우수한 기술·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이 표준화 및 인증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표준 원안 작성을 위한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동시에 표준 원안의 작성, 국제 회의 참가, 인증 취득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
- ③ JSA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사업전략을 위한 표준화 활용을 포함한 표준화 활동 등에 대해 조언을 한다.

(4) 표준화 인재의 육성 강화

- ① 정부 및 JSA는 국제표준화 실무 수행능력과 글로벌하게 통용하는 협상능력 및 매니지먼트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시해 온 IEC 분야의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양 프로페셔널 연수제도를 ISO 분야에도 확충하는 동시에 OJT를 이 연수제도의 프로그램에 도입한다.
- ② JSA는 국제표준화 심의 대응에 필요한 지식 등을 단기간으로 습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비한다.
- ③ 정부, JSA 및 산업계는 관리직, 영업직, 초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한다.
- ④ 정부는 산업계나 학회와 협력하여 대학의 기술경영학 등 커리큘럼을 위한 체계적인 표준화 교재를 작성하고 표준화 강좌의 도입을 촉진한다.
- ⑤ 관련 단체는 정부와 연계하여 간사국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중핵 인재를 세대를 넘어 확보하기 위해 커리어 패스를 고려한 계획적인 인재육성 강화에 노력한다.
- ⑥ JSA는 국제표준화의 경험이 풍부한 인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별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 ⑦ 정부 및 JSA는 ISO/IEC의 중앙사무국의 일본인 직원 채용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한다.

2. 세계에 통용하는 인증 기반의 강화

- ①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해외전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 인증 또는 시험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확인되는 인증기반을 순차적으로 국내에 정비한다.
- ② 구체적으로는 메가와트 수준의 축전지 시스템 및 파워 컨디셔너, 생활지원 로봇 및 제어시스템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인증기반을 신속히 정비한다. 또 파인버블, LED조명기기, 재생의료 등 인증기반에 대해서는 표준화의 진전, 시장의 성장 등을 고려하면서 관민이 연계하여 수시 정비를 추진한다.

3.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

- ① 정부는 선진국과의 연계를 계속 추진시키는 동시에 각국의 국가규격의 개발, 표준화 인재의 육성 및 인증기반의 정비에 대한 지원, 국제표준의 공동개발 등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 ② 관민이 연계하여 상대국 정부나 공적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의 일원으로서 표준을 보급하는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4. 후속조치 체제의 구축

- ① 이 전략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표준화 관민전략 회의’ 산하에 관민 각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된 간사회를 설치한다. 이 간사회의 사무국은 ISF가 맡기로 한다.
- ② 상기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필요에 따라 표준화 관민전략 회의를 개최한다.

<참고자료>

경산성, 표준화 민관전략(2014.5.15.)

<http://www.meti.go.jp/press/2014/05/20140515003/20140515003-2.pdf>